

활짝 만개한 꽃망울부터
수줍게 피어나 숨어든 풍경까지

구석구석 '봄기운 만연'

설레는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사는 누가 뭐래도 벚꽃.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몰고 온 벚꽃의 향연은 이달부터 익산에 펼쳐질 전망이다. 활짝 만개한 꽃망울부터 새색시처럼 수줍게 피어나 고이 숨어든 풍경까지 익산 구석구석 봄기운이 만연한 벚꽃 명소를 소개한다.



왕궁리 유적에 활짝 핀 벚꽃

1공단 내 사잇길 벚꽃 꽃망울 '화사'
왕궁리 유적에서 벚꽃 감상과 함께 백제의 역사·문화 체험 즐기는 것도

▲꽃비 내리는 1공단 & 꽃대궐 원광대 교정
1공단 벚꽃길은 출퇴근 시간 오가는 차량이 많아 가장 눈에 띄는 명소이자 익산에서 가장 먼저 화사한 꽃망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. 특히 공단 내 사잇길 벚

꽃의 꽃망울은 보다 크고 화사하다. 또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은 어디서도 보기 힘든 유려함 그 자체다.

원광대학교 교정의 봉황각 앞 터널을 이룬 벚꽃길과 일렁이는 꽃잎 물결을 따라 걷다 보면 환상의 나라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진다. 벚꽃 나무 아래로 더해진 보랏빛 꽃잔디도 그 색깔과 향기로 시선과 발길을 붙잡는다. 벚꽃과 꽃잔디의 뒤를 이어 피는 붉은 철쭉의 화려함도 눈여겨볼만하다.

▲우리동네 명소 배산공원 & 봄꽃 힐링 함벽정

벚꽃나무가 즐비한 배산공원 가는 길목은 산책하기 좋은 곳 중에 하나다. 소나무 숲과 바위들이 잘 어우러진 배산은 나서기 번거로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오가며 벚꽃을 즐길 수 있다.

익산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보석박물관 옆에 자리 잡은 함벽정은 벚꽃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막상 누각에 올라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바라보면 저수지 위로 떨어지는 벚꽃이 한 폭의 풍양화를 연상케 한다. 함벽정을 내려와 저수지 수문 건너편 언덕으로 오르면 울창한 소나무

숲길 산책로와 조각공원도 만나볼 수 있다.

▲꽃향기 가득 왕궁리 유적 & 감바람 꽃바람 만경강

왕궁리 유적에서는 벚꽃도 보고 백제역사도 체험해 볼 수 있다. 이곳의 벚나무들은 유난히 크고 웅장하다. 들판에 있어 다른 곳의 벚꽃보다 피는 시기는 좀 늦지만 홀벚꽃이 아닌 겹벚꽃이어서 늦는 만큼 더 풍성하다. 꽃감상이 질릴 때쯤 바로 옆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들러 역사와 전통문화를 즐기며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의 자부심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.

만경강 뚝에서는 산책과 자전거를 달리며 벚꽃을 즐길 수 있다. 만경강과 어우러진 꽃길은 춘포 용연 배수장에서 오산 신지 배수장까지 익산지역만 약 20km에 달한다. 봄이면 만경강 특유의 벚나무와 함께 산수유 꽃으로 물들고 산딸나무, 배롱나무 등이 연초록빛을 더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.

▲팔봉동 벚꽃터널 & 송림사 벚꽃길

송림사 사거리에서 시작해 옹포 소재지 방향으로 뻗어 있는 옹포 벚꽃길은 도로 양옆으로 핀 벚꽃이 어우러져 터널을 이루고 있는데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흐드러지게 핀 꽃망울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.

서둘러 찾아온 봄에 마음이 바빠지는 시기, 꽃 피자 곧지는 것처럼 눈 깜짝할 새 벚꽃 잎이 바람결에 흩날리게 될지도 모른다. 이번 주말 지역 곳곳의 벚꽃 명소 산책과 축제를 만끽하며 알찬 봄꽃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. /익산=정인천 기자



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
www.firefly.or.kr

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

무주 반딧불축제

Muju Firefly Festival

2019. 8.31 토 ~ 9.8 일

문화체육관광부
Ministry of Culture, Sports and Tourism

무주군